

서부권

“합평 학교사거리 고가 철거해주오”

목포 ‘개인택시 증차’ 찬·반 공방

합평군 학교면 주민들이 무안공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차량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국도 1호선 광주~목포간 학교사거리 위를 지나는 고가도로의 철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고 있어 정부차원의 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주민들 “교통량 급감·소음 고통” 권익위에 건의 국도유지관리소 “손실 커 철거 곤란...용역 필요”



국도 1호선 광주~목포간 학교사거리 고가도로.

12일 합평군과 학교면 주민들에 따르면 학교면 변영회와 사거리 고가도로 철거대책 위원회 위원장 대표 김영관(57) 씨는 사거리 고가도로를 철거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학교면 주민 65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최근 합평군청에서 실시한 국민권의 위원회 이동신문고에 정식으로 건의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정부차원의 정확한 교통량 조사가 이뤄져 빠른 시일내에 불발사항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학교면 주민들은 건의서에서 “사거리 고가도로가 국도 1호선 목포~광주방향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1990년대 설치됐으나 지난 2007년 무안공항에서 광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국도 1호선 무안~나주간 교통량은 예전보다 3분의 1로 감소해 고가도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남선 철도 복선화공사로 사거리 상가와 면 소재지 사이를 고가철도가 관통하고 있지만 10m 높이

고가도로에 방음벽 하나 설치되지 않아 소음 고통속에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주민 임모(학교면)씨는 “정부의 대책사업이었기에 모든 불편함을 감수했지만 무안공항~광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한 현실에서 더 이상의 고가도로의 기능은 상실됐다”며 “가득이나 어려운 시기에 사거리 상권 활성화 등 지역상권의 기록적 역할을 고가도로 철거를 꼭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 국도유지사무소 관계자는 “무안공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예전보다 교통량이 감소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사유만으로 철거한다면 경제적 손실과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사회적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교통영향 분석 및 타당성 검토 등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황원익기자 hwang@

개인택시-법인택시 시장 공약 놓고 의견 팽팽

최근 목포시 개인택시 증차문제로 찬·반 양측간 논란이 대두되고 있지만 목포시는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 못하고 있다.

이는 목포시장이 양측 모두에게 해당되는 선거공약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목포 개인택시 지부는 지난 11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중득 시장이 ‘목포 인구가 26만명이 되기 전에 택시를 증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시정에서 집회를 열고 목포시의 택시 증차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또 “인구 감소와 자가용 운전자 증

가 등으로 운전자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남양 신도시가 목포 생활권인데도 영업구역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규 개인택시 면허 발급대상자인 17년 이상 장기근속 법인택시 기사 43명은 증차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또한 정 시장이 지난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증차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시장 선거공약을 근거로 주장한다”며 시정에서 집회를 열고 목포시의 택시 증차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이토록 찬·반 양측 모두 목포시장의 공약을 근거로 택시 증차 문제가

팽팽 가운데 찬·반중 하나는 ‘불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 가운데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장 공약집을 검토해보았지만 이들이 주장한 내용의 사실 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날 중 양측과 시의원 등 간담회를 통해서 증차 문제에 있어 원만한 대안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목포에서는 개인택시 911대를 포함해 모두 1533대의 택시가 운행하고 있으며, 시는 오는 12월 까지 교통량 조사를 위해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국제항해실습 대장정 “많이 배워오겠습니다” 목포해양대 해사계열 및 해양공학계열 3학년 학생 263명을 비롯한 교수와 승무원 등이 12일 학내 부두에서 2010년 2학기 국제항해 실습 출항식을 갖고 있다. 학생들은 실습선 ‘새누리호’와 ‘새유달호’를 타고 16일간 일본과 중국에서 국제 항해실습을 한후 오는 27일 귀항할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슈퍼 김’ 해남서 본격 시험양식

해남수산업소, 완도 등 5개 시범지역 분양

일반 김에 비해 성장 상태가 빠르고 껍질이 강한 일명 ‘슈퍼 김’이 해남에서 본격 시험양식된다.

수산기술사업소 해남지소(지소장 김동수)는 국제식품 신품종보도동맹에 대비해 개발한 ‘진남 슈퍼김 1호’ 시험양식용 패각사상체를 완도 등 5개군 시범지역 김양식 어민에게 분양하는 등 2차연도 시험양식에 들어갔다.

이 패각 사상체는 지난 4~9월 전문

배양장에서 배양한 것으로, 일반 김에 비해 성장 상태가 빠르고 각 포자의 크기가 커져 방출 시기가 빠르다. 수산기술사업소 ‘1호’는 지난해 시험양식 결과 껍질 발생 시기에 병해발생과 열해 탈락이 적었고, 일반 김에 비해 1.5배 이상 크게 성장했으며 빛깔은 흑록색을 띠는 특징을 보여 어업인으로부터 호응을 받는 품종이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천연기념물’ 진돗개 브랜드화

郡, 지리적 표시 보호 강화·특허 출원키로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진돗개의 브랜드화가 추진된다.

진도군은 최근 진돗개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와 지원 증진보급회를 특허청을 비롯해 한국발명진흥회, 전남지식재산센터, 브랜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와 지원에 대한 수행내용과 특허출원 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진돗개는 주인에게 충직하고 귀소(歸巢)성이 뛰어나며, 수렵본능과 용맹성이 탁월해 많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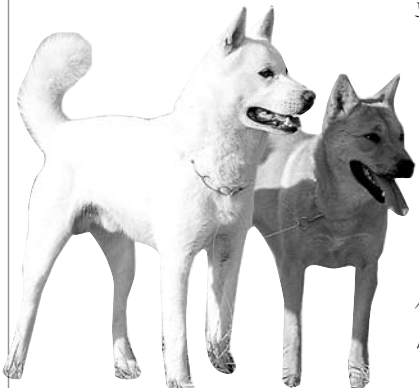
랑을 받고 있지만 진돗개에 대한 브랜드화와 체계적인 관리는 지금까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군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최하고 전남지식재산센터(목포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진돗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와 지원을 통해 국제적 지리적 표시 보호 강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군은 진돗개 등 특산품의 권리를 통해 지역 특산품을 보호하고 장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특허를 출원하고 1~2년 내에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현재 진돗개 명견화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진돗개에 대한 특정 품질 및 명성 ▲지리적 환경과 진돗개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대한 연구 ▲브랜드 개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 등을 연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목포대 ‘에코파워 요트사업단’ 선정

2013년까지 117억 지원...파워보트 시제선 제작

목포대학교(총장 고석규)가 세계 레저선박 산업으로의 본격 진출을 위해 오는 2013년까지 20피트(ft)급 파워보트와 국내최초로 60피트(ft)급 FRP 파워보트 시제선을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 제작하게 된다.

목포대 해양레저산업지원센터장 유재훈 교수(해양시스템공학과)가 참여하는 ‘에코파워 요트사업단’은 최근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해양

레저장비산업 경쟁력강화사업의 기술개발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이달부터 4년간 총 117억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유재훈 지원센터장은 개발대상 시제선은 배출가스 저감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엔진과 통합운항 정보시스템을 탑재하고 선체 중량을 10% 절감해 기존제품과 차별화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명품 분재·쇼나 조각 ‘한눈에’

신안군 12일~31일 분재공원에서 전시회

신안군 압해면 송공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가을맞이 명품분재 전시회’가 열린다. 분재공원은 쇼나 조각 101점과 분재 250점, 수석 52점, 미니수목원, 야생화원, 유리온실이 설치돼 지난해 4월 개장 이후 현재까지 17만 명이 다녀가는 등 명품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역에서 활동중인 분재와 야생화 및 국화동호회의 협찬을 받아 판매장을 운영, 판매액의 10%를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토착문화의 상징인 ‘쇼나(shona) 조각’ 42점(5000만원 상당)이 분재공원에 추가 전시된다. 신안메이도 이상화 대표는 천사의 섬 분재공원과 갤러리를 건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수집한 쇼나 조각을 기증했다.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분재와 쇼나조각 등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wncho@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신문지사,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전원주택, 상가건물, 기타토지. T. 010-4911-4989 FAX. 062-376-6611

토지 매매. 위치: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대지: 4,000평. 건물: 650평. 전: 9,500평. 합계: 13,500평. - 매가: 40억 5000만원.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동신대 ~ 나주 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T. 011-620-3960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010-8337-1055. 고품 조용한 숲속에 바닷가 향토 전원주택. 30평+뒀밭 300평. 전세 5천 (월세로 가능) ※ 현재 광주-고흥간 고속도로 공사중 완공시 (40분내 거리). 바닷가 전원주택 부지 200+300+500평 있습니다. 문의 010-8337-1055